'금융·실물 불안' 잠재우는 '특단 조치'

■ 금융위, 자본확충펀드 20조 규모 조성

은행권 재무건전성 악화 대비 추가 수혈

내년 1월까지 자금 마련 은행채 등 매입

금융위원회가 18일 내놓은 20조 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은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구조조정의 본격화에 대비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손실 흡수 능력을 끌어올려 기업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대외 신인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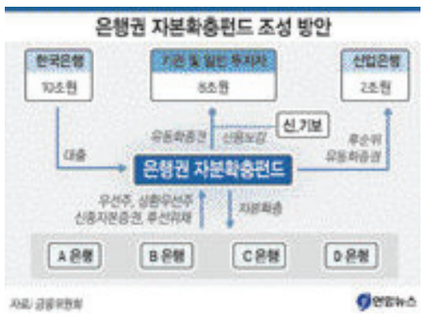
◇ **은행 자체 자본확충 '허덕'** = 금융위는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기자본을 내년 1월까지 9%로 맞추려면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자본 수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은행들이 확충해야 할 기본자본은 11조 원이지만 내년에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지면 부실이 커져 추가로 6조~7조 원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은행들의 BIS 비율은 9월 말 현재 10.86%이며 이중 기본자기자본 비율은 8.33%에 불과하다.

은행별 기본자기자본 비율은 ▲국민은행 9.17% ▲SC제일은행 9.06% ▲신한은행 8.50% ▲씨티은행 8.43% ▲외환은행 8.31% ▲우리은행 7.64% ▲하나은행 7.43% 등이다. 현재로선 외환·우리·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의 자본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기본자본 확충 목표액인 11조 원 중에서 3조 원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연말까지 목표로 세운 6조7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가운데 6조 원어치를 발행했다.



금융위는 펀드 조성에 앞서 자발적인 자본확충 실적이 미흡한 은행에는 추가적인 자구 방안을 요구하고 현재 기본자본의 15%로 제한된 하이브리드채권 등 신종자본증권 발행 한도를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 **펀드 조성·지원 방식은** = 금융위는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필요한 자금을 내년 1월 중에 한국은행에서 10조 원,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로부터 8조 원, 산업은행에서 2조 원을 끌어올 계획이다.

우선 한국은행으로부터 10조 원의 대출을 받아 은행들의 우선주나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사들인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붙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은 최소 5년 이후에 펀드에 관 우선주 등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해 조기 상환하면 된다.

펀드는 다만 은행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주로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은행들은 자체 비용 절감,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불필요한 자산 확대 자제 등을 양해각서(MOU)와 같은 형태로 약속해야 한다.

펀드를 이용한 은행 자본확충 지원은 경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환율 1200원대 급락

나흘째 하락 … 주식시장도 강세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이틀째 호재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나흘째 급락하고 주식과 채권 가격은 강세를 보이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됐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3.00원 급락한 1,29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간 80.50원 급락하면서 지난달 5일 1,266.00원 이후 40여일 만에 1,200원대로 떨어졌다.

증시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16포인트(0.53%) 오른 1,175.91, 코스닥지수는 1.54포인트(0.45%) 오른 340.37에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이날 코스피지수는 13.63포인트 오른 1,183.38로 출발해 장중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기관 매수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년 주식시장 1월 2일 10시 개장

증권선물거래소는 18일 내년 주식시장을 1월2일 개장하되 개장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개장식 진행에 따라 정규시장(주식, 상장지수펀드, 주식워런트증권, 채권 등) 개장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임시 변경했으며, 선물옵션 시장은 개장시간만 1시간 늦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운영한다. /연합뉴스

증시·채권시장 활성화

기업 '돈맥경화' 없앤다

증안펀드·주식발행 여건 개선

정부는 금융위기 속에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시와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8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달 출범한 증시안정펀드 운용과 함께 공시부담 경감을 통한 주식발행 여건 개선,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작년말 17조1천억원에서 지난달말 4조4천억원으로 줄어든 데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자금도 같은 기간 8조5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감소해 '돈맥경화'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증시안정펀드가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1천30억원 투입한데 이어 내년 3월까지 모두 5천150억원이 투자된다.

매월 같은 규모로 투입되는 이 자금은 주식 80%, 채권 20% 비율로 운용된다.

금융위는 또 다년간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WKSI)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신고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주식 발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신뢰를 쌓은 기업의 경우는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자를 허용하고 발행 예정기간을 2개월~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최소 발행횟수 제한(3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수요 확대를 위해 현재는 회사채 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자산운용 규정도 손질해 카드채 등 금융채 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몰리고 있는 자금이 채권이나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되도록 MMF에 대해 금융기관 예치(CD 포함) 한도(예 : 30%)를 한시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식 세계화연구단 발대 18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한식세계화를 위한 '한식세계화연구단' 발대식이 열려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들이 '개성편수', '우메기', '망개떡' 등 음식을 살펴보고 있다. 농진청은 이날 외국인들에게 '조랭이 떡국', '동지죽', '강릉산자' 등을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연합뉴스

쏘나타 가격 39만원 싸진다

개별소비세 인하 … 제네시스 159만원·포르테 26만원 ↓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값이 상당폭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세금 인하가 실시되는 19일부터 국산 소형차는 대체로 20만~30만원, 중형차는 30만~50만원, 대형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350여만원 가량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대차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 S16 럭셔리 모델은 현재 1천553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 인하시 28만4천원이 내려간 1천524만여원으로 가격이 조정되며 기아차 포르테의 값은 1천435만원에서 26만2천746원이 인하된 1천408만여원이 된다.

GM대우의 준중형 신차인 라세티 프리미어 CDX 고급형은 1천770만원이었던 것이 1천738만원으로, 소형차 젠트라 엑스 1.2 SX는 1천28만원에서 1천9만원이 되면서 각각 32만원과 19만원씩 내려간다.

2천155만원인 현대차의 중형세단 쏘나타 N20 트랜스폼은 2천115만여원으로 39만4천여원이 싸지며 GM대우의 중형차인 토스카 SX모델은 2천233만원에서 2천192만원으로 조정돼 41만원 가량 가격이 내려간다.

르노삼성의 SM5 LE의 경우, 2천430만원이었던 차량을 44만원 싸진 2천386만여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형차나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은 애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만큼 인하폭이 더 크다.

프리미엄 세단인 현대차 제네시스 300 럭셔리는 4천629만원에서 159만여원이 줄어 4천469만여원이 되며 3천833만원인 기아차 SUV 모하비 QV300고급형 2WD는 132만여원 적은 3천700만여원으로 가격이 바뀐다.

르노삼성 SM7 RE 3.5는 128만원 저렴한 3천582만원에, 쌍용차 SUV인 렉스턴 노블레스는 138만원 싸진 3천865만원으로 판매된다.

쌍용차의 고급 대형 세단인 체어맨 W V8 5000 리무진은 판매가격이 1억200만원에서 9천848만원이 되면서 인하폭이 352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도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폴크스바겐의 중형 세단인 파사트 2.0 TDI 프리미엄은 70만원이 내려간 4천380만원에, 대형 세단인 페이톤 3.0 TDI는 290만원이 싼 8천700만원이 된다. /연합뉴스

LPG 값 오늘부터 내린다

SK가스 등 kg 당 100원씩 ↓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계가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LPG 가격을 내렸다.

18일 LPG 업계에 따르면 SK가스와 E1 등 국내 양대 LPG 수입업체는 19일 0시부터 LPG 공급가격을 kg당 100원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E1이 공급하는 프로판 가스는 kg당 1천367원에서 1천267원으로, 부탄가스는 kg당 1천760원에서 1천660원으로, 자동차용 부탄가스는 ℓ 당 1천27.84원에서 969.44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또 SK가스의 공급가격도 프로판 가스는 kg당 1천368원에서 1천268원으로, 부탄가스는 kg당 1천761원에서 1천661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한편, 수입가격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내년 1월 LPG 공급가격도 kg당 약 3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펀드 투자자 보호기금'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대량 환매 등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투자자 보호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펀드 투자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같은 기금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영업조직 평가 때 불완전 판매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조장하다가 적발된 금융기관과 관련 임직원은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일부 시중은행을 상대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일부 시중 은행들에 검사단을 파견해 펀드 불완전 판매 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하고 해당 임직원은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사모펀드 이용 M&A 자유화

경영난 극복 감산·설비축소 담합 허용

앞으로 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다른 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경영난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생산량이나 생산설비를 축소해도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만든 PEF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5년간 받지 않는다. PEF가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제한없이 행사하며 몸 값을 높여 되팔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에 소속된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 상장사 지분은 최소 20%, 비상장사 지분은 최소 40%를 가져야 하는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제조업체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금영수증 발급 부담 줄인다

영세 자영업자, 전화요금·소득세 인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이 건당 10원 가량 인하되고 소득세에서 20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년 간 한시 적용된다.

국세청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공중전화망을 이용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규모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통신(KT) 이용자들의 전화요금을 현행 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통신비 부담이 없지만 영세업자들은 공중전화망을 사용하고 있어 결제건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銀, 온실·축사도 매입

농식품부 FTA 추가 대책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유리온실, 축사 같은 농어가 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소요 재원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과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자산을 사들여 부채상환, 경영 회생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유리온실, 축사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 지금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매입 대상을 유리온실 및 축사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부채는 대부분 온실, 축사 같은 시설 건립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사무내근직	초대졸/경력1년	2000~2200	12/21	016-647-3676
㈜화인코리아	해외(중국), 생산(공무-전기), 식품연구개발, 총무(비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1	061-330-4523
㈜컴스쿨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367-1150
㈜커리어서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무보조(비서겸직) 사원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12/22	062-515-0026
ING생명[본사]	[광주본사직영센타]TM상담원-월30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3	02-3452-2612
핫붐	제품 편집디자인, 상품보정 업무 담당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4	070-7505-5995
㈜송백 전남매일	광고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4	062-720-1028
㈜에스제이브로드밴드	[나주/주5일]SK브로드밴드 서비스 상품안내 TM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25	1600-3828
㈜코아스웰 광주사업부	사무용가구 영업지원/대리점관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6	062-576-6989
에듀코어㈜광주상무지점	영어 강사(문법 강의 등)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9	062-382-9408
㈜수인산업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29	011-617-7681
(유)현석건설	건축기사 및 토목기사	초대졸/경력3년	2000~2200	12/30	062-651-7538
㈜제일중기	무역영업원 및 해외영업원(영어)	대졸/경력무관	2200~2400	12/31	062-527-55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